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5일)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국제선명상대회 열린다

9월 23~28일 ‘2024 불교도 대법회’
28일에는 광화문 일대서 ‘선명상대회’
종단 첫 수계법회 · 승보공양 재현도
선명상대회 · 음악회로 국민행복 기여
“마음 · 세계평화 위한 염원 담아 결집”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선명상대회가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9월 23~28일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일환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불교문화 계승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2024 불교도 대법회’ 개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24년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요행사로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승보공양 등 전통문화 재현 △2024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가제)‘이고득락離苦得樂-기쁘지 아니한歌’ 등이 있다. 조계종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수승함을 확인하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향한 불자들의 염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9월 23~28일, 광화문광장 옆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에서 진행되는 전통등 전시는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주제로 전통한지로 제작된 장엄등 20여 개가 전시된다. 9월 25~27일에는 명상, 전통, 청년, 템플스테이 마당 등 총 4개 주제 체험부스 20여 곳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도 열린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원로의원이 지도위원으로 나선다. 교구본사와 계층별 수계대상자 등 약 3만 명이 수계법회에 동참한다. 수계법회 식순은 〈재가불자 수계의범〉을 기준으로 하며 7~8월 교구별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계법회 후에는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공양대상 스님은 원로위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위원 등 600명이며 가사공양과 헌공 등이 검토 중에 있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 국제 선명상대회’는 9월 28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회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 하에 해외 초청 명상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선명상 실참이 준비됐다. ‘우파야 젠 센터’ 주지 로시 조한 핼리팩스, 달리이라마 영어 통역 전담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엔지니어 차드 멩 탄, 잡지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수행 안거센터 운영자 직메 린포체 등이 동참한다.

국제 선명상대회는 9월 30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기 봉선사, 한국문화연수원, 서울 홍대선원, 부산 쿠무다, 계룡 홍제사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10월 1일 국제 컨퍼런스 이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조계종은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종교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도 역량 결집은 물론 전통불교문화 계승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국민행복 기여, 마음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 염원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종도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포교 전법은 매우 희망적”이라면서 “아름다운 불교 전통과 거룩하고 장엄한 불교의식을 전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주고, 더욱 확고한 신뢰와 불교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젊고 새로운 불교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저력을 펼쳐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각회는 7월 3일 창립총회에서 이헌승 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총회 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를 법사로 법회를 진행했다

제22대 국회 정각회 창립…“상생정치 구현” 다짐

7월 3일, 국회 정각선원서 창립총회
회장에 이헌승, 부회장에 김영배 의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제22대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신임회장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국회 정각회는 7월 3일 서울 국회본관 정각선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5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정각회의 회장 소임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임기는 20대 국회 전반기인 2026년 5월 29일까지다.

4선 중진 의원으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승 정각회장은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정각회는 순수한 불자모임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불교 입법 수호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한다”면서 “불교 현장에 먼저 다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헌승 회장은 주호영 명예회장에게 정각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명패를 전달했다. 주호영 명예회장은 회원들에게 “정기법회와 명상수업 등 정각회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각회를 활용해 신행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 정각회에서는 추미애, 박대출, 서영교, 이개호, 이종배 의원이 고문을, 주호영 전 정각회장이 명예회장을 맡는다. 임원진은 김영배 수석부회장, 송언석, 김병주, 김형동 부회장, 이수진 수석간사, 서범수 입법지원위원장, 민병덕 종단지원위원장, 최은석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각회는 이날 22대 창립총회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자광 대종사를 법사로 정각회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광 대종사는 “국민을 위한 원력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송현광장 이승만기념관 계획 폐기하라”

7월 4일 종도 명의 성명서 발표

태고종이 전체 종도 명의로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태고종은 성명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로 불교계의 법난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려 오랜 내홍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친일불교 청산과 근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의 자정의 노력을 무산시켰고 우리 불교사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송현광장의 의미도 다시 조명했다. 태고종은 “광장 일대는 4.19혁명 당시 무력에 희생당한 여중생들의 모교인 덕성여중이 위치했던 곳이며 수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당한 통한과 아픔이 서린 공간”이라며 “이런 장소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이번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우리 불교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태고종은 헌법 정신과 민주질서를 파괴한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 폐기와 함께 서울시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동조 중단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